조선대 연구력 비약적 성장

국책사업·연구비 올 상반기에만 378억원 수주…전국 30위권

국제학술지 논문 실적도 전국 15% 이내에

조선대학교(총장 전호종)의 연구력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지표에 따르면 조선대의 연구력은 전국 대학 가운데 30위권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연구력은 해마다 비약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각종 국책사업과 연구비 수주에서 확인된다.

지난 2009학년도에 747억원을 수주해 조선대 사상 가장 많은 사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룬데 이어, 2010학년도에는 1학기 동안 378억원을 수주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250억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인 '친환경자동차부품인력양성사업'이 포함된 반면 올해는 대형과제 없이도 지난해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대학의 연구수준을 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국제전문학술지 SCI급 논문실적이 대학정보공시 기준에 따르면 교수 1인당 0.3편으로 전국일반대학 상위 15% 이내에 오르는 성과를 기록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올 상반기에는 세계 Top Class 연구 성과로 김근형 교수(공과대학 기계공학과)의 세계 최초 신경손상 환자 신경재생용 인공도관 제작기술이 Wiley사 재료공학저널 6월호 표지논문으로 선정됐으며, 최철희 교수(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가 개발한 항암제 내성진단키트 기술을 3억여원의 기술이전료를 받고 중국에 기술이전했다.

상반기에 수주한 주요 연구과제는 82억원 규모인 고령인의 순환계 급성 기능장애 예방을 위한 생체위험 감지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공공복지안전 연구사업(책임교수 김윤태)을 비롯해 ▲바이오 리파이너리 기반 고효율 평판형(FPA) 광생물반응기 개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책임교수 정상화) 23억원 ▲KIRAMS-13 양성자빔을 이용한 핵분석 기술개발을 위한 원자력연구기반 확충사업(책임교수 이경진) 18억원 등 상반기 전체 378억원 규모에 달한다.

또한 기술이전 수입은 상반기 3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한 해에 거둔 2억6000만원을 벌써 넘어서는 등 전반적인 연구관련 지표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조선대는 상반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연구력 증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조기정년보장제, 연구업적 총량제, 연봉제 교원 성과상여금 등급 조정, 연구업적 규정 및 인사규정 개선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와 더불어 연구성과 확대에만 그치지 않고 연구성과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9월 중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최근 교과부에 기술지주회사 설립계획서를 제출했다. 기술지주회사란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일정한 지분소유를 통해 자회사를 지배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말한다.

조선대 기술지주 주식회사는 현물과 현금을 합하여 총 자본금 60억원으로 출범하며, 매년 현금을 추가 증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현물투자하는 특허권은 항암신약개발 특허기술과 화장품 및 생활용품 등에 활용되는 펩타이드 특허기술로서 세계적인 원천기술에 해당한다. 이 기술들은 정부공인 특허가치평가기관으로부터 그 부가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평가되어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행남 조선대 산학협력단장(공과대학 기계공학과)은 "조선대가 상반기에 거둔 연구 성과는 꾸준한 신임교수 공채와 투명한 연구비 관리, 적극적인 대학의 지원 등 3박자가 어우러진 결과물"이라며"이 같은 연구 성과물을 실용화하기 위해 제주를 포함한 호남지역 최대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 대학의 연구개발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고, 대학재정의 기여는 물론 졸업생 취업률 제고와 대학의 사회적 공헌 실천 등 조선대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2010 상반기 주요 연구과제 수주실적

과제명	연구책임자	금액/기간	지원기관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	김윤태 교수	82억원/5년	교육과학기술부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정상화 교수	23억원/3년	지식경제부
원자력연구기반 확충사업	이경진 교수	18억원/6년	교육과학기술부
농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장해춘 교수	7.8억원/3년	농림수산식품부
앱창작터 지정운영사업	정현숙 교수	5.8억원/2.5년	지식경제부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박윤경 교수	6.4억원/2.5년	교육과학기술부
농림기술개발사업	신현재 교수	4.5억원/3년	농림수산식품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김수관 교수	4.2억원/2년	보건복지가족부

LG전자 현장면접 LG전자는 오는 10월에 있을 IT업계 공채에 앞서 지방의 우수 인재를 선점하기 위해 최근 전남대 도서관 별관에서 이공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실시했다.

전남대 이유진박사 줄기세포 연구 서울 국제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해 전남대 출신의 박사가 국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남대는 25일 서울에서 국내외 줄기세포 전문가 500여명이 참석한 대형 국제학술대회(2010 Seoul Symposium on Stem Cell Research)에서 전남대 이유진 박사(수의학박사, 지도교수 한호재)가 최우수논문상인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유진 박사는 이 자리에서 세포배양 배지에 사용하는 포도당으로 손쉽게 배아줄기세포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이 논문은 21C 프론티어사업 세포응용연구·중견연구자사업 도약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줄기세포를 임상에 활용하기 위해 줄기세포 배양 배지를 포함한 세포외 환경을 적절하게 조성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연구 성과다.

이유진 박사는 최근 4년간 SCI 논문 20여 편을 발표하고 전남대 대학원 우수논문상, 대한수의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등 뛰어난 연구 활동을 보이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병원 고영엽 교수 세계 3대 인명사전 등재

조선대병원 순환기내과 고영엽 교수가 2009년과 2010년에 이어, 세계적인 인명사전인 '마르퀴스 후즈 후 인더월드' 2011년판(28th Edition)에 실리게 되어, 3년 연속 등재되는 영광을 안았다.

앞서 고 교수는 금년 5월에는 영국 국제인명센터의 2010년 'Top 100 Health Professinonals'로 선정되는 한편, 6월에는 미국 인명정보기관(ABI)의 2010년 '올해의 의약 및 건강보건 분야 의학자'로도 선정돼 등재된 바 있다.

이로써 세계 3대 인명사전 모두에 이름을 올리며 그 실력을 인정받는 고영엽 교수는 현재 조선대병원 심혈관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관상동맥 중재시술 분야를 비롯한 심혈관 질환 진료 및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그는 특히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복지안전 연구사업' 주관대학으로 선정 된 조선대의 '급성 심혈관계 질환 진단시스템 연구단'의 임상과제 책임자로서 연구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최대 3억원 장학금 드립니다"

숙명여대 파격적 장학제도 눈길

"최대 3억원 입학장학금 받는 학생 나올까?"

각 대학별로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입학성적 우수학생에게 재학 중 최대 3억원의 파격적인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대학이 있어 주목된다.

숙명여자대학교(총장 한영실)는 최근 수능성적우수자 장학금을 강화하고 특성화 및 신설전공 육성 장학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2011학년도 입학성적 기준 신입생 장학제도'를 확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숙명여대 이기범 입학처장은 "수능 백분위 평균 99점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순헌 장학금'의 경우 입학금과 4년 등록금 전액(대학원도 동일 적용)은 물론 기숙사비(학업지원비), 해외대학 복수학위 경비를 지원하고 대학원 입학·등록금을 지원하거나 외국 명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진학시 항공료 및 등록금을 지원하는 등 학생 1인에게 최대 3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숙명여대는 순헌장학금 외에도 특선 장학금을 강화하고 다양한 특성화 장학금을 신설했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블루리본 장학금'으로서, 수능성적 백분위 평균 97점 이상인 학생 30명에게 각각 최대 1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여대 우리밀빵 브랜드화 사업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선정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오장원)가 2010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 지원 대상에 선정돼 향후 3년간 총 12억여원을 지식경제부와 광주시로부터 지원받게 됐다.

광주여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우리밀빵 명품 브랜드화 사업(단장 박병건 교수)'으로, 전국 최대의 우리밀 생산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광주시에서 고부가가치의 건강한 빵을 우리밀로 생산해 명품 브랜드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연고의 우리밀빵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한 국민 보건 향상 및 우리밀 생산량 증대를 통한 우리밀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 및 식량자급률 향상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이다.

광주여대 사업단은 "최근 빵의 경우 소비 증가와 함께 단순한 포만감 뿐 아니라 영양가, 브랜드,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수요자의 요구사항이 다양화되고 있어 우리밀빵에 대한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RIS 사업에 선정된 박병건 사업단장(식품영양학과 교수)은 2007년 우리밀싹 연구를 시작으로 2009년 우리밀광역클러스터사업자에 선정, 우리밀 산업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한식홍보대사 선발 광주 조리경연대회

'2010 세계한식홍보대사' 선발을 위한 '광주 조리경연대회'가 다음달 10일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 상하관 1층 카페테라스에서 열린다.

한식세계화를 위한 국가적 정책실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2010한식홍보축제'의 일환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각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한식요리 작품이 출품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가 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금, 은, 동상 입상자에게는 미국·중국·일본 등 3개국에서 열리는 한식홍보행사에 홍보대사로 참여하게 된다.

참가신청은 오는 9월 6일까지이며, 신청서는 '2010한식홍보축제'(www.wkff.or.kr)에서 다운받아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호남대 조리영양학부(010-7288-9127)로 문의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